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5.9



동남아시아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베트남의 티엔 티엔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다 순교했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동남아시아 기독교인들은 자국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과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각 지역 마을 지도자들과 애니미즘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애니미즘 Animism, 만물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원시 신앙으로 자연의 다양한 것을 숭배함

하지만 많은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위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비나 웬브란트 사모와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베트남의 티엔은 하나님의 일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고, 자신 역시 집 없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라오스의 캄라는 체포된 이후에도 감방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역시 올해 동역자들이 라오스에서 가장 위험한 시골 지역에 들어가 성경 약 4,000권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른 곳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 성경 배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가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후 억울하게 구금된 한 라오스 전도자가 같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2011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날을 회상하던 캄라 Kham La의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다. “기독교인이 된 후, 내 삶은 행복해졌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캄라는 여전히 라오스의 한 마을 작은 땅에서 고추와 벼를 키우는 생계형 농부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캄라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소명을 발견했고, 이는 지역 당국자들 사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캄라는 마을과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전했다. “내가 가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들으려 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내가 믿음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인 되고 싶어 했어요.”

거세지는 압박

라오스 헌법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허용하며, 최근 제정된 법령은 기독교 신앙에도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하지만 많은 라오스인, 특히 정부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공산주의 정권을 약화하려는 서구 세계의 도구이자 외래 종교로 간주한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직후부터 캄라는 지역 당국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마을을 떠나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3년 동안, 경찰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를 소환해서 심문했다. 그들은 신앙 포기 각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다.

“두렵지 않았어요. 그저 굳건하고 신실하게 버티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캄



▲ 캄라는 농작물을 시장에 배달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했다.

◀ 캄라(왼쪽)는 감옥에서 섬겼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라가 말했다.

3년이 흘러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당국자들은 전략을 바꿨다. 캄라는 “경찰은 나를 감시하다가, 내가 마을에서 나가려고 하면 길을 막아섰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심지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캄라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날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경찰에게 제지를 받을 때, 오히려 그는 경찰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도발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나요?” 이러한 도발에 경찰은 더욱 분노했고, 캄라와 그의 가족을 계속 괴롭혔다.

심지어 캄라는 두려워 소심해진 성도들에게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경찰한테 캄라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갈게요’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캄라의 유일한 조건은 성도들이 신실함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체포, 그리고 투옥

2022년 8월 8일, 캄라는 지방 경찰청에서 열리는 당국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 뒤, 캄라는 아들을 데리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캄라는 알 수 없었지만, 도착하자 그곳이 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란 사실은 분명해졌다. 어떤 설명이나 혐의도 없이, 경찰은 캄라에게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감방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즉결 심판만으로 캄라를 감방에 가둔 채 혼자 버려 두었다.

나출 후, 캄라를 감방 밖으로 끌어낸 경찰은 자백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또한 다른 마을을 다니면서 만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캄라는 더 큰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61명의 수감자들과 한 감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촉은 거부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지체 없이 감방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 시간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감옥에 캄라를 이송해 온 당국자들은 간수들에게 캄라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했다. 한 간수는 캄라에게 그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위반하는 게 있으면 최대 5년 형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캄라는 이 소식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 사람에게 ‘2년이든, 5년이든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요’라고 답했어요.”

캄라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들은 그를 찾으려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국 라오스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최전방 사역자의 도움으로 시스템을 통해 캄라의 소재지를 추적할 수 있었다.

체포되고 3주가 지났을 때, 마침내 캄라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가족들이 재회하게 되면서 애초에 캄라가 왜 구금되었는지 놀라운 사실

▼ 밭에서 일하는 라오스 농부들



▲ 캄라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그의 가정을 지원했다.

이 밝혀지게 되었다. 캄라가 체포된 것은 그에게 통보조차 된 적 없는 25달러 미만의 벌금이 채무로 잡혔기 때문이었다. 이 혐의가 밝혀지고 그의 사건이 잘못 처리되었음이 드러나자 교도소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반대로 캄라가 처음에 그를 기소한 지역 당국과 함께 자신들을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캄라는 석방되었다.

감사

가족들은 캄라에게 그가 없는 동안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의 체포 이후 더 큰 압박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경찰은 캄라의 체포와 수감 사실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다면 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 들은 캄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격려하곤 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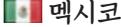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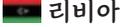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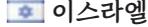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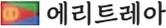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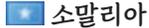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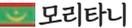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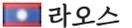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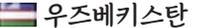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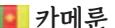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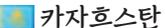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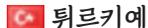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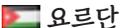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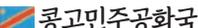
어떤 이들은 여전히 캄라에게 그를 투옥했던 당국을 고소할 거냐고 묻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같다. “그들에게 말했듯이 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캄라는 또한 감옥에서 섬겼던 수감자 61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한다. 그중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석방되었지만, 캄라는 그들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 “내가 체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난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캄라가 말했다.



2025년 9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5
	 멕시코 복음 사역 때문에 괴한에게 납치되었던 부부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리비아 불안정한 삶에 지친 국민들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찾아 나아오도록	 이스라엘 2007년 공격으로 남편을 잃고 같은 과부들을 위해 사역하는 폴린을 위해	 모로코 정부의 규제에도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복 M
7	8	9	10	11	12
 에리트레아 신앙 때문에 수감됐었던 성도들에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치유가 있도록	 방글라데시 한때 이슬람교 성직자였으나 믿음 때문에 조카에게 구타당한 압둘을 위해	 타지키스탄 현재 일부 도시에서만 구할 수 있는 성경을 성도들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튀니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더 많은 시민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말리아 국외에 소말리인이 더 많지만 국내외 소말리인 모두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14	15	16	17	18	19
 몰도바 오랜 노력 끝에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몰도바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	 쿠웨이트 토착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차드 극단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공급을 경험하도록	 라오스 훈련받은 목회자가 드문 라오스 교회에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벌금과 구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	복
21	22	23	24	25	26
 네팔 민족주의 힌두교도들의 반기독교 선전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카메룬 보코하람의 공격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 위로와 치유 주시기를	 카자흐스탄 경찰의 감시에도 미등록 가정교회 성도들이 계속 모일 수 있도록	 튀르키예 당국자들이나 가족이 억압해도, 튀르키예 성도들이 신실하도록	 요르단 무슬림 난민을 섬기는 교회들이 사역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 S
28	29	30			
 시리아 기독교를 핍박하는 드루즈파 무슬림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케냐 무슬림이 대다수인 곳 어디든 필요한 방언으로 된 성경이 많이 보급되도록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군이 교회에 불을 질러 부모를 잃고 심한 화상을 입은 디바인을 위해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5	6
쿠웨이트 최전방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젊은이들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 경찰의 압력에도 지하교회들이 계속해서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리도록
12	13
오만 기독교인 가족의 신실한 증언으로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스라엘 지방 정부와 가족들의 폭력적 반대에 직면한 개종자들을 위해
19	20
미얀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기를	필리핀 아부사야프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대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26	27
오만 성경 구매가 금지된 곳에서 성도들이 디지털 매체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북한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복음 방송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송출되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라오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라오스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약 6,700권의 성경책과 오디오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수많은 시골 지역 라오스 기독교인이 한 번도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매년 수많은 라오스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라오스 교회 지도자는 성경이 필요한 새신자가 매년 1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라오스 기독교인들에게는 은밀하게, 그리고 인편을 통해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만 원으로 라오스어 성경 1권을,
30만 원으로 라오스어 성경 10권을,
300만 원으로 라오스어 성경 100권을,
3,000만 원으로는 라오스어 성경 1,000권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오스 현지 동역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성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우리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9월 30일까지 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라오스'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라오스'라고 기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아버지를 잃어도 신실하게

2022년 늦여름, 티엔Tien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쩡영 Truong이 집에서 친형제가 이끄는 무리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티엔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티엔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불과 며칠 전, 다른 마을에 일자리를 구해 집을 나서던 때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었고, 티엔과 세 남동생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아버지 쩡영이 그녀를 배웅해주며 그곳에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고, 티엔은 이 생에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티엔의 눈에는 충격과 슬픔의 흔적이 여전하다. 이제 18살이 된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베트남 여성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존재는 티엔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준다. 아직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나이이지만, 티엔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남동생들을 부양하고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베트남 사람 대부분은 조상 숭배와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반면, 억압적인 공산주의 정부는 기독교 예배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무신론을 장려한다. 티엔의 가족이 소속된 부족과 같은 소수 부족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박해에 직면한다. 부족 마을에서 새신자들은 종종 집에서 쫓겨나고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고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

티엔은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결과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똑똑히 기억한다. 쩡영은 술을 마시면 티엔의 엄마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폭력은 멈추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아버지는 술을 끊었어요. 아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했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우리들을 잘 돌보고 싶어 했어요.” 티엔이 말했다.

티엔은 나이가 들면서 그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하나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티엔이 성경을 알고 사랑하도록 격려했다. 티엔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여름, 티엔의 부모는 근처 교회에서 3일간 열리는 어린이 성경학교에 티엔을 보냈다.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티엔은 말했다.

티엔의 아버지는 어린 딸의 믿음을 계속 양육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겪을 수 있는 고립과 핍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티엔은 아버지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배척당하고 가족에게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이제 18세인 티엔은 아버지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고난에 자신을 잘 준비시켜 주었다고 회상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썬영은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그가 죽임당하던 바로 그날까지도 그랬다.

그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다. 티엔의 남동생인 탄 Thanh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썬영의 형이 한 무리의 사내들을 이끌고 집으로 다가왔다. 티엔은 아직도 그들이 집에 침입했는지, 아니면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아버지가 그들을 집에 들였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내들은 썬영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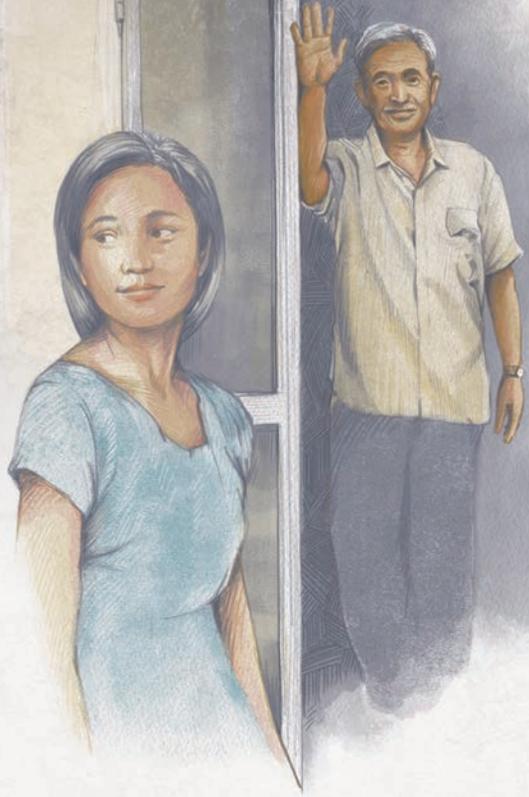
티엔이 집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버지 주변에 서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려고 온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냥 울고 말았어요.” 티엔이 말했다.

티엔이 견뎌야 할 슬픔은 아버지 썬영의 죽음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충격으로 남동생 탄은 말을 잃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예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 역시 끝내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다가, 결국 남편이 살해된 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16살의 나이에, 티엔은 산산 조각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말았다.

티엔은 부모님의 집에 머물기 원했고, 12살인 탄, 9살 마우Mau, 7살 당Dang까지 남동생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큰 아버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탄을 데려가 함께 사는 것이었다. 티엔은 이것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탄이 그 공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큰 아버지는 집과 가족의 오토바이까지 압류했고, 결국 티엔과 남동생들은 집도, 교통수단도 없이 떠나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세 남매는 외조부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신론자였지만, 티엔과 형제들이 교회에 가고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티엔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때문에, 큰아버지를 용서하고 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요. 언젠가 큰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탄이 돌아와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을 큰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티엔은 언젠가 동생들 모두와 같은 집에서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티엔은 새 직장을 구해 집을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했었다. 티엔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격려가 훗날 가족들이 겪은 핍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다시 모여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의 도움으로 현재 티엔은 동생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는 미용 기술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티엔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 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우와 당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도한다. 가족을 떼어놓은 큰아버지의 구원, 그리고 자신에게 치유의 보금자리를 허락해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티엔이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 북한/중국/나이지리아/인도/이집트 편

교회 주일학교(여름/겨울 성경학교), 대안학교, 홈스쿨 최고의 교재!



교사용 12,000원



어린이용 7,000원

- 유치원생부터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재
- 성경 속 영웅들의 이야기와 함께 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기독교 어린이들의 담대한 삶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움으로써 담대한 다음 세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과정
- 펍박 국가의 상세 정보 및 문화적 배경, 시간별 수업 활동, 성경 암송 구절, 게임, 만들기 및 심화 학습 활동 자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어린이 컨퍼런스에서 테스트한 결과 교사 및 가족, 참가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교사 지침서와 어린이 활동 교재 별도 제작

각 나라 별로 교사용 교재와 활동을 위한 어린이용 교재가 별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 북한 편>

- 일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순교자의 소리 대전 사무실
- 신청 방법 및 문의: 02-2065-0703 / 010-3151-2065 (화-토 9:00-5:00)
- 강사: 순교자의 소리 대표 현숙 폴리 목사
- 회비: 50,000원(점심 및 교사 지침서 포함)

아래 영상과 QR코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기독교인에 대해 배워보고 히13:3 말씀을 실천하세요!

“감옥에서 진정 건디기 힘들었던 것은 고문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라오스, 분찬의 말 중에서



라오스 영상



라오스 국가 정보



베트남 국가 정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먼저 사용하세요!

- 업무** 대전 사무실: 북한사역 간사 단체가 운영하는 탈북민 선교 학교의 행정 및 관리, 수업/행사 준비 및 진행
시설 관리 매니저 여러 지역에 위치한 단체의 시설 관리/유지
자원봉사팀 간사 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 부산 사무실: 자원봉사팀 간사 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디지털컨텐츠 간사 영상촬영/녹음/편집 및 웹사이트 관리
그래픽 디자이너 책 레이아웃과 표지 디자인, 소식지 디자인(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 등)
번역가 단체 내 모든 보고서 및 보도자료, 소식지 및 도서 번역

자격 기독교인 / 관련 영역 유경험자, 영어 가능자 우대

info@vomkorea.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단체 내부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최초의한국어성서와 한국개신교의기원론』 15,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전 세계 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 - 복을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스터디 성경』
일반 25,000원
큰글자 30,000원



『조선어스터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21세기 존로스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